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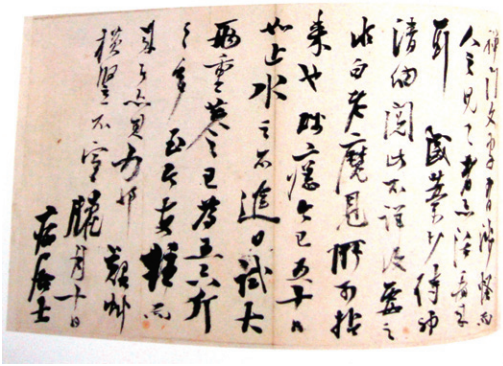
## 초의 편찬 <진묵조사유적고> 추사 고증

1842년 겨울, 전주 봉서사에서 김기종에게 진묵대사(1562~1633)의 내력을 들은 초의는 그 자료를 수습하여, 1847년 <진묵조사유적고>를 편찬한다. 조선의 효자로 칭송된 김기종은 추사와 교유했던 인물이다.

추사는 1855년 김복규와 그 아들 김기종의 효자 정려비(旌閭碑)를 썼는데, 초의는 추사의 소개로, 김기종과 교유했다. <<완당전집>>(여초의)29신및 <영해타운첩>, <나가목연첩>에 수록된 이 편지는 초의가 <진묵조사유적고>를 편찬할 당시 정황을 드러낸 자료인데, 진묵의 행적을 제공하고, 이 유적고의 체제 및 서문을 일일이 고증한 것도 추사였음이 확인된다. 그의 병이 이미 오십일이 되었다는 사실에서 이 편지는 대략 1843년 12월 10일에 보낸 것으로 추정된다.

병석의 추사에게 초의의 편지와 차는 “이마를 적어주는 감로”였다. 초의의 제자 상훈이 보내준 차 또한 향미가 뛰어났고, 좋은 차를 만들어 보내 준 자흔과 향훈, 자신의 병이 어느 정도 나아지면 향훈에게 글씨를 써 보내겠다는 성의를 보였던 추사였다. 간절한 그의 마음을 담은 편지는 이렇게 시작되고 있다.

病枕連見禪圖 是一續慧命之神符 灌頂甘露 何以多乎 茶惠夫醒病胃 感切入髓 況際此沈頓之中 耶 自欣向熏之各有遠胎 其意良厚 爲我代致款謝也 熏納之另贈朴生之葉茶 恐不下於坡公瀧茶芽香味絕佳 幸更爲我再乞一包如何 當於病間 另以拙書爲雀環之報 並及此意於熏納 而即圖之 泡醬儘佳 亦病舌之爽利者到底銘篆 震師行迹 茲以還去 依此行之 亦無妨矣 兩叙無可刪而原錄中 頗或有可商處 今此精神不接無以一一點正 此非一日之



<나가목연첩>

“스님의 편지와 茶는 감로  
병든 위 낮게 하니 감동 사무쳐”  
초의 제자에게도 글씨 보답 약속

事 稍俟異日 更訂亦佳 依此行之亦佳 禪門文字有涉怪而人之見之者 亦活看來耳 盛衰少待神清細閱 此不詳復 要之非白老魔見 所可拈來也 賤序今已五十日 如止水之不進 日試大兩重夢 已爲五六斤之多 至今支拄而來者 亦其力耶 艱草橫豎 不宜 病 중 침석에서 연이어 스님의 편지를 보니 이는 해명을 이어가는 신부로, 이마를 적어주는 감로도 어찌 이보다 낫다 하겠습니까. 보내주신 차는 병든 위를 말끔히 낮게 해 주니 감동이 뼈에 사무치게 간절합니다. 하물며 이런 침든 속에서야 (보내 주신 차의)감동이 어찌 이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겠습니까. 자흔과 향훈도 각자 멀리까지 보내 주어 그 뜻이 진실로 두터우니 나를 위해 대신하여 감사하다고 전해 주십시오. 훈 스님이 박

생에게 별도로 보낸 엽자는 파공의 추아차보다 뒤떨어지지 않으며, 향미가 뛰어나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행여 나를 위해 다시 한포를 청하는 것이 어떨겠습니까. 내 병이 좀 웬만해지면 별도로 줄서로서 환자의 보답을 할 것이니 아울러 이 뜻을 훈 스님에게 알려주어 바로 도모하십시오.

포장도 매우 좋아 역시 병든 혀를 상쾌하게 해 주는 것이니 감명이 깊습니다. 진묵대사의 행적은 이편에 돌려보내니 이에 따라 행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두 가지 서문은 삭제할 것이 없고, 원록 중에는 혹 생각해야 할 곳이 있을 듯합니다. (그러나)지금 내 정신이 여기까지 미치지 못하여 일일이 정정할 수 없으며, 이는 하루에 해야 일은 아니니 차차 다른 날을 기다려서 다시 정정하는 것도 좋겠고, 이것대로 행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선문의 문자는 조금 이상한 데가 있더라도 보는 사람마다 살려서 보기 때문입니다. 방대한 원고는 조금 정신이 맑아질 때를 기다려서 세세히 살펴 볼 것이니 여기에는 자세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요컨대 백과 늙은이의 마견으로는 생각해 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천한 이 목의 병은 지금 이미 오십일이 되어 마치 멈춘 물이 흐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날마다 두 량 쯤 나가는 큰 인삼을 시험 삼아 복용한 것이 이미 대 여섯 근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버려 온 것도 인삼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렵사리 적고, 이만 12월 10일 병거사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군포교는 밝은 사회 만드는 ‘씨 뿌리기’”

## 임기 마친 제2대 군종교구장 자광 스님

2012년 5월 2일 육군논산훈련소에서는 군포교 사상 최대 불사인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 낙성법회가 열렸다. 만 여명의 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진행된 연무사 낙성회를 보며 그 누구보다 흐뭇한 미소를 짓는 이가 있었다. 바로 조계종 제2대 군종특별교구장 자광 스님이 다.

1년이 지난 7월 26일 자광 스님은 제3대 군종특별교구장 정우 스님에게 업무를 이관하고 군포교 일선에서 물러났다. 4년 동안 각종 군포교 사업을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간 뒤에 찾아온 휴식이었다. 사실 자광 스님은 군종교구장을 지내며 지병을 얻었다. 고혈압과 당뇨, 심장 협심증으로 호국 연무사 불사를 하며 받은 심한 스트레스가 원인이었다. 2012년에는 수술을 하기도 했다.

“출가하며 부처님께 중생을 건지겠다고 서원했습니다. 이 불사만큼은 목숨을 바쳐서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자광 스님은 평생을 포교사로 지냈다. 군법사로 25년간 포교활동 후 교도소 교정활동에 이어 다시 교구장으로 활동했다. 스님을 지난 7월 21일 군종교구가 위치한 서울 호국원광사에서 만났다. 이날 자리는 스님의 환승법회가 진행된 날이기도 했다.

에 와보세요. 군포교가 바로 청년포교입니다. 호국 연무사 불사는 그 바탕이 될 것입니다. 모두가 불자 한반도의 관심과 정성으로 이뤄졌기에 더욱 뜻 깊고 의미 있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법당에서 신명나게 불법을 전한다고 생각하니 기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 ‘위법망구’ 자제로 포교 길 걸어

자광 스님은 왜 군법사의 길을 걸었을까. 6·25한국전쟁 무렵 학창시절을 보낸 자광 스님은 고등학생이던 1959년 화엄사에서 출가했다.

“훈탁했던 시절 불교 가르침을 들으니 인생을 바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출가해 행자생활을 시작했어요.”

스님이 출가한 때 불교계에서는 정화운동이 한창 진행 중이었다. 스님은 당시 총무원장이던 경산 스님을 시봉하며 조계사에서 생활했다. 스님은 중단했던 고등학교를 마치고, 해인사 강원에서 공부하던 중 동국대에 중비생 제도가 생겼다. 스님은 은사 스님이 ‘젊은 스님들이 새로운 학문을 접해야 한다’며 입학에 권유해 중비생 1기로 동국대에 입학했다.

### 불사 동참해 준 대중에 감사할 따름

“이제 군포교는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습니다. 호국 연무사 신축법당 완공 이후 법회에 교회보다 더 많은 장병들이 찾고 있어요. 호국 연무사에서 3500명 정원을 넘어 5000명 가까이 장병들이 매주 불법을 접하고 있습니다.”

자광 스님 임기 동안 가장 큰 과제는 바로 1기 군종교구에서 의결된 호국 연무사 불사였다. 부임과 동시에 불사 추진의 짐을 지게 됐지만 스님은 연무사 불사는 군포교와 한국불교 미래를 위해 의당 진행되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다.

“연무사 신축법당 불사 전에 논산훈련소 수계법회에 갈 때마다 정말 잠달았습니다. 장병들이 다 들어오지 못해 추운데 밖에서 서서 법회를 보기도 하고 목욕탕 의자를 놓고 뺨뺨이 쭈그러 앉아 법회를 보기도 했습니다. 당장 교회에만 가도 편한데 불교가 좋아서 온 아이들에게 이것밖에 못해주나 하는 마음이 절로 들었어요. 다행히 총무원장 스님께서 그 중요성을 알고 적극 지원해 주셨습니다.”

호국연무사 불사는 그렇게 첫 삽을 떴다. 하지만 불사는 쉽지 않았다. 스님은 전국을 다니며 군포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불자들의 마음을 모았다.

“군포교, 청년포교가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압니다. 문제는 선포 자기 돈을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불교계 행사마다 가서 화주를 청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60만 장병이 있기에, 또 400여 방담을 누비는 법사들이 있기에 마음을 내고 또 했어요.”

호국 연무사 불사는 순탄치 않았다. 불사 초기 건설 시행업체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미납금 문제 등으로 이지는 불어만 갔다. 주변 이들은 스님이 잠을 설친 적도 많았다고 귀띔했다. 결국 스님은 수술까지 받게 됐다. 하지만 호국연무사 신축법당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알고 있는 스님이기에 스님은 전국을 누비며 화주를 권했다.

“28년 전 결혼식 때 받은 예물을 그대로 보내준 분과 아이 돌잔치 상자를 보내준 분, 또 불편한 몸으로 장애 수당을 받으면서 그 수당을 모아 보내준 분, 요양원에서 용돈을 모아 보내준 분 등 불사동참 때 마다 이 불사는 반드시 성취해야 한다는 마음을 갖게 했습니다.”

스님은 아직도 호국 연무사 낙성이 감격에 겨운 듯 떨림을 감추지 못했다.

“포교현장에서 청년포교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군

군대 다녀왔는데 3기 군법사로 임관  
군승실장 당시 군승TO 크게 늘려  
‘일당백’ 군승 배출 위해 교육 강화  
교구장 임기 중 연무사 불사 성료

불사 스트레스로 심장 수술 받기도  
수천 장병들 “오게 받들겠습니다”  
그 외침 속에 한국 불교 미래 있어

군포교와의 인연은 이때 만들어진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군승제도가 처음으로 실시된 것이다.

“대학을 마치고 선방에 들어가려는데, 군승으로 갈 스님이 부족하다며 임대를 요청받았습니다. 사병으로 군대를 갔다 왔는데 또 군대를 가리니 난감했어요.”

결국 스님은 3기 군법사로 재임명됐다. 초기 군포교 현실은 참담했다. 법회 장소가 없어 말 그대로 야단법석이었다. 천막을 치고 법회를 보았다. 사병식당, 창고 등에서 법회를 보기도 했다.

“불교는 이웃종교에 비해 늦게 군포교를 시작했어요. 그만큼 일선 군승 법사들이 죽을 각오로 포교했습니다. 인도 구법승의 ‘위법망구’의 자세였어요.”

스님은 군법사로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했다.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다. 스님의 군법사로서의 가장 큰 업적은 현재 군포교의 바탕이 된 군승 수를 확보한 것이었다.

군 내 종교인 수는 국방부에서 TO를 조정한다. 자광 스님은 국방부 군종실장으로 재직하며 군승 수를 크게 늘렸다. 당시 압도적이었던 군목의 수를 100명 가량 줄이고 군승을 140명으로 늘린 것이다.

“당시 군부대 종교현황 통계를 보면 개신교 비중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먼저 포교를 시작한 것도 있지만 배정된 군목의 수는 잘못된 것이었죠. 군승수를 늘려야만 불교가 군내 포교의 바탕을 만들 수 있었어요.”

당시 기독교를 갖고 있었던 기독교 측을 설득하는 일은 만만치 않았다. 여기에는 스님의 작은 인연이 큰

# 社團法人 세계 불교 법왕청

법왕 추대시까지 임시 중앙 정부 조직으로 추진위 활동  
임시 중앙정부 10월 9일 선포식

주관 - 법왕청 소속 각 종단 및 불교단체 총연합 협의회

석가모니 부처님의 숨결과 호흡이 존재하는 부처님 세상을 만들고자 합니다.

전세계 모두가 공감하고 찬성하고 모시고자 하며 불교국 승가  
종정 큰스님들이 역시 그분이라면 하며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존경받고 추앙받는 불교의 최고의 어른을 선정하여 추대 하고자  
법왕청을 설립 하였습니다.

세계 불교 지도자들은 불교의 위상을 높이고

지구촌 중생 교화, 교육, 중생구제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며  
법왕 및 승왕을 추대 옹립한 이후 각 불교국 나라의 대표자  
대승정, 승정을 임명하여 법왕청을 중심으로 세계 불교인들의  
체계적 조직을 이룰 것입니다.

큰스님들께서 직접적인 동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세계불교를 움직이는 인물 고승 및 대중사 법왕청 내각 임명자

세계불교 고승단 1080명 인명 대사전

(1인 A4용지 분량 크기로 등재하며 비용 일체 없음)

종교법인 국제 불교 지도자 협회 이사장  
사단법인 세계불교 법왕청



MAHA SADDHAMMA JOTIKAD HAJA SANGGALAJA  
추진 집행위원장 大僧正 木鐸 - 慧恩

전화 02)733-5665, 5670, 011-229-6061 / 팩스 02)733-5671



7월 21일 호국원광사에서 열린 환승법회가 끝난뒤 군불총장정들과 군법사들과 함께 찍은 기념사진



자광 스님은... 1959년 구례 화엄사에 입산해 경산 스님을 은사로 사미계를 받고, 1963년 자운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받았다. 해인사승가대학을 거쳐 동국대 종비생 1기로 졸업하고 1970년 군승 중위로 임관했다. 월남전에 참가하기도 한 스님은 귀국 후 3군 선봉사와 육군사관학교 호국선원을 창건했다. 1981년 육해공군 군승 단장을 역임했으며, 1987년 대령으로 승진, 3군 군종참모와 국방부 군종실장을 지냈다. 1995년 대령으로 예편하고 용인 반야선원을 창건해 수행하고 있다.

힘이 됐다. "5사단 군종참모로 재직 중일 때였어요. 부대에 외부 교회의 지원이 끊겨 건립이 중단된 교회가 있었습니다. 군목과 함께 그 교회 원로목사를 찾아가 부대 내 기독교를 믿는 장병들을 위해 도와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스님이 교회를 짓겠다는 말에 원로목사는 어리둥절했다. "스님이지만, 장병들을 위해 종교시설이 건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에 교회공사는 재개됐다. '불교'가 아닌 종교생활을 갈구하는 장병들을 먼저 생각하는 명분이 선 것이다.

**군포교 성패가 불교 미래**  
호국 연무사라는 큰 불사를 앞두고 불교계가 군종교구 수장으로 자광 스님을 선택한 것은 스님의 이런 모습을 높게 샅기 때문이기도 했다. 군종교구 2기 동안에는 군포교는 군승 독신 조항 등이 도입되며 군승 수급 등의 문제가 생기기도 했다. 이때 군종교구가 선택한 답은 군승 자질 향상이었다. 자광 스님은 군승들이 정식 임관에 앞서 자질과 소양을 익히는 과정인 입대 전 교육기간을 대폭 늘렸다. 본래 1주일이나 사나흘 만에 마치던 것을 12주로 진행하며 군승으로서의 역량 극대화에 매진했다. 의식집전, 법회 준비와 설법, 장병들과의 맞춤형 상담, 군(軍)과 군종교구의 행정과 직제에 대한 이해 등 스님이자 군인으로서 알아야 할 모든 것을 교과목으로 세분화했으며 베테랑 군법사들로 강사진을 구성해 후배들을 지도하게 했다. "일당백의 군승을 배출하기 위해 예비교육 강화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최근 입관 수료식에서 장관, 총장상 등 1,2,3등이 모두 군승에서 나왔어요. 이제 군승하면 중단에 어디에다 내놔도 포교 실력 면에서 제일가는 승단의 일원입니다." 아울러 비구니 스님들의 파승도 추진돼 2014년 1명

이 파승될 예정이다. 많은 업적을 남겨두고 자광 스님은 이제 스님의 사찰인 용인 반야선원으로 돌아간다. 스님은 교도소, 경찰서 등에서 다시 포교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제 고장난 몸을 좀 고치고 필요한 곳에서 죽을 때까지 중생교화에 기여하고 싶습니다. 부처님께 받은 사명입니다. 그동안 중생과 부딪치고 현장에서 고락을 같이 하면서 그 곳에서 느끼는 바가 많았어요. 중생 앓고 있는 현장에서 같이 희로애락하며 공부하려고 합니다." 함께 고락을 같이한 군승들에게 고마움을 전한 스님은 "스님들이 중생교화를 제일 목표로 삼았으면 좋겠다. 참선도 좋지만 대중들의 삶 속에 수행도 있고 마음의 안정도 있다"며 스님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스님은 군포교에 불자대중들의 지속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자신도 군포교 현장에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도움을 주겠다고 말했다. "농사를 지으려면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군대에 있더라도 2년이 있으면 사회인이 됩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이 주인이라는 가치관을 심어주는 일,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고 자신을 부단히 개발해서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입니다." 스님은 끝으로 수계법회를 비롯한 포교현장에서 장병들의 우렁찬 목소리가 지금까지 스님을 이끌어 준 큰 힘이었다고 밝혔다. "오계를 받들겠습니까" 하면 수천명의 장병들이 '받들겠습니다'고 외치는 감동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한국 불교의 미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군대에서 성공 못하면 사회 어디서든 성공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불교, 기독교도 군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불자 여러분 한명 한명의 관심이 군포교를 살립니다."



2012년 1월 신년 첫 수계법회에서 장병들에게 계를 내리는 자광 스님

### 전법일기

#### 조계종 청년출가학교

장마가 막 시작되던 6월 말, 간단한 짐을 챙겨 땅끝마을 해남 미황사로 향했다. 서울에서 가장 먼 곳으로 길을 잡은 것은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열린 '청년출가학교' 행사 진행 때문이다. 청년출가학교는 20대에게 출가자의 삶을 안내하고 출가가 새로운 삶의 대안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해 출가의 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됐다. 8박9일동안 사찰에서 생활하면서 불교와 인문학 강의를 들으며 불교를 바르게 이해하고 불교적 안목으로 사회를 통찰해 스스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는 프로그램이다. 형형색색의 옷을 벗고 회색 법복으로 갈아입은 40 여명의 청년들의 얼굴에는 긴장한 빛이 역력했다. 특히 흰고무신을 신고 가지런히 두 손을 모아 치수한 모습은 말 그대로 '행자'다. 여타 수련대회와는 눈빛부터 다른 것은 '출가'라고 하는 다짐 때문일 것이다. 참가 청년 중에는 이런 엄중한 분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는 사람도 있었으니 진중한 분위기는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그도 잠깐이었다. 부처님 앞에 예경하는 법을 배우고 예불문을 함송하면서 무거웠던 분위기는 부처님을 향한 장엄한 예경과 찬탄으로 바뀌었고 참가 청년들의 행동거지도 서서히 달라졌다. 부처님 품에서 자신을 바라보기 시작한 참가 청년들은 하나둘 마음의 짐들을 내려놓았다. 지도법사 스님과 자유롭게 상담하면서, 청년들은 그간 마음에 담아 놓았던 고민보따리를 풀었다. 보따리가 열릴수록 눈물샘도 함께 열렸다. 남학생이

## 그래도 한국불교의 미래는 밝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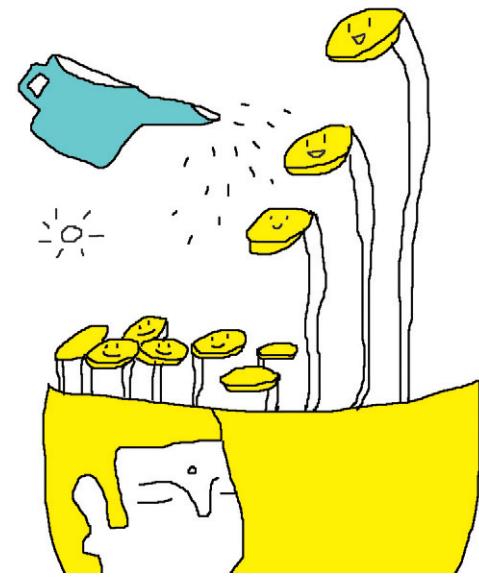


그림 · 박구원

굵은 눈물을 쏟으며 털어놓은 이야기로 마음이 먹먹해져 어떻게 추스려야할지 상담자로서 난감하기도 했다. 어떤 참가자는 예불할 때 '지심귀명례'만 나와도 눈물이 쏟아져 건널 수 없다고도 했다. 남자를 불문하고 한 없이 눈물을 쏟아낼 때 당황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마음가득 채워지는 신심으로 환희로운 표정을 짓는 청년들이 있어 이 시대 청년들을 위한 출가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새삼 깨달았다. 요즘 중단 안팎으로 출가자 감소로 인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03년 463명의 출가자가 2012년에는 203명으로 절반 남게 줄었으니 그럴 만도 하다. 특히 2003년에는 30세

미만의 출가자가 수계자의 절반이 넘는 것과 달리 2013년에는 30~40대 출가자가 절반을 차지한다. 출가자 감소와 고령화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걱정만 하고 한숨만 쉬고 있어서는 안된다.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인천의 사표가 돼 출가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종단적 노력과 함께 출가공동체 전체의 과제로 삼아야 한다. 청년출가학교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문화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청년들에게 출가는 남의 일이 아닌, 새로운 삶의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물론 출가정신을 자신의 삶에서 실현할 수 있도록 승가공동체 생활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 출가라고 하는 것이 특정한 사람이 선택해서 가는 길이 아닌 누구나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더불어 사는 중만된 삶을 살고자하는 사람이라면 언제라도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출가문화운동'을 통해 적극적으로 만들어가야 한다. 출가문화를 경험한 청년들 중에 수행자의 길에 접어든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삶의 현장에서 돌아가 분업에 충실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출가정신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한다. 행복의 기준들이 물질적 충족에서 나눔의 행복으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배려와 존중의 삶으로 전환되어가는 것이 스스로 느끼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출가정신일 것이다. **가섭 스님(조계종 교육국장, 경기 오포 불국사 주지)**

## 찬덕불교 아름다운 등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

오색 로고전구

판공전구

주름 등

왕정기전구

칼라로카시전구

용가 등

공단 등

그림 왕정기

\* 사찰명 인쇄시 제작기간이 소요되오니 예약 주문 바랍니다 \*

**전선(케이블) 연등승강장치 天上列車**  
\* 이계는 법당 연등 설치도 바쁜 하나로 해결하세요.

연등 자동 승강장치 - 흥은사

**신상품 찬덕 LED 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

| 종류    | 일반전구    | 찬덕 LED 전구 |
|-------|---------|-----------|
| 소비전력  | 10W     | 2W        |
| 효율    | 10 lm/w | 50 lm/w   |
| 연간전기로 | 2146원   | 429원      |
| 수명보장  |         | 30,000 시간 |

(대) (중) (소)  
(인등용 LED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용주사 LED 인등

보림형 위패

**찬덕불교가 개발한 새로운 개념의 신상품 영구위패 · LED 인등 · LED 전구**